

# 미얀마의 선거법과 2010년 총선 전망

조흥국

미얀마 군부 정권은 2010년 3월 8일 미얀마연방 선거위원회법, 정당등록법, 인민의회 선거위원회법, 국회 선거위원회법, 주의회 선거위원회법 등 5개의 선거법을 승인했다. 선거법의 세부 내용은 그 하루 뒤 발표되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 선거가 정확히 언제 실시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2008년 헌법에서 2010년에 총선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내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얀마 정부의 내부 정보를 근거로 한 일본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선거가 10월 10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것은 ‘2010년 10월 10일’이 모두 ‘10’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길운의 날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얀마 군부 정권의 최고 실세인 탄쉐(Than Shwe) 장군은 2003년에 미얀마의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확립한 7단계의 로드 맵이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달성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로드 맵 중 다섯 번째 단계가 선거이다. SPDC는 군부가 주도하는 미얀마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만약 2010년에 총선이 치러지면 1990년 총선 이후 20년 만에 다시 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1990년 선거에서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Aung San Su Kyi)와 그녀의 국민민주연맹(NLD)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군부가 그 선거결과에 따라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독재를 행하고 있다.

## 선거법의 내용

미얀마연방 선거위원회법은 연방 선거위원회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군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고, 군부 정권이 모든 선거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한다.

정당등록법은 특히 정당 가입과 소속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국가에 의해 규정된” 반정부 단체의 회원, 그리고 외국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종교 교단 소속의 종교인들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것은 2007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불교 승려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인다.

정당등록법은 또한 현재 수감 중인(“serving a prison term”) 사람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으로 2,000명 이상의 정치범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탄쉐 장군은 선거 실시 전에 특별사면을 통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 석방이 언제 실행될 것인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선거법의 다른 조항에서는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이 상원 혹은 하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투표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정당등록법의 상기 조항으로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도 가택연금을 “수감 중”으로 해석할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야당의 다른 정치적 동지들을 위한 선거 캠페인도 할 수 없게 된다. 수지 여사는 지난 20년의 대부분 기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었다. 2009년 8월에는 호수를 헤엄쳐 건너 그녀의 집에 침투한 한 미국인을 집에 들였다는 죄로 3년 징역형에 선고되었다가 그 후 가택연금 18개월 연장으로 감형되었다.

선거법의 다른 주요 내용을 보면,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원이 최소 1,000명 되어야 하며 6월 6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새로운 선거법은 인민의회, 국회, 주의회 등 각급 의회 의석의 4분의 1을 군부에게 배당해 놓았는데, 이것은 2008년 헌법에서 이미 그 기본 방향이 확정

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선거법은 이 선거법에 준하지 않은 1990년 선거의 결과를 무효한 것으로 처리했다.

## 비민주적인 선거법에 대한 반응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법 발표에 대해 “좌절시키고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리핀은 이 선거법을 “어릿광대극”(farce)이라고, 미국은 “조롱거리”라고 묘사했다.

2009년 미국은 미얀마 군부 정부와의 건설적 협력관계를 추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었지만, 이번 선거법이 발표되자 그러한 관계의 구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미 국무부 차관보인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선거법이 미국-미얀마 관계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14개 국가와 EU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미얀마의 벗 그룹’(Group of Friends on Myanmar)도 이번 선거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탄쉐 장군은 3월 27일 미얀마 국군의 날 기념일에 행한 연설에서 선진국들의 미얀마 정치 개입을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외세에 의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웅산 수지는 변호사를 통해 이 선거법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선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LD는 정부가 정당들에게 선거 캠페인을 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선거법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면서, 헌법을 개정하여 군부의 영향을 축소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국제적 감시를 허용하며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우선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NLD는 결국 선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거에 등록하지 않은 NLD는 군부 당국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체되었다. NLD는 이제 없어진 셈이다.

그러나 NLD의 몇몇 원로 당원들은 선거를 보이콧 하는 것은 정부의 손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아, ‘국민민주의 힘’(National Democratic Force)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결성했다. 이 정당의 당수는 킨 마웅쉐(Khin Maung Shwe)이며 당 대표는 탄 네인(Than Nyein) 박사이다.

## 독재의 연장을 위한 선거

사실 새로운 선거법은 미얀마의 군부의 독재 연장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군부는 투명하지 않은 국민투표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2008년 헌법에서 이미 군부의 집권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놓았다. 그리하여 예컨대 국방, 내무, 사법 등 핵심적인 장관직은 항상 군부가 차지하도록 해놓았으며, 44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중 330명은 선거에서 뽑고 나머지 110명은 군부가 차지하도록 했다. 헌법은 이러한 조항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뜻을 박아 두었다.

탄쉐 장군은 2010년 1월 대국민 연설에서 미얀마 국민들이 다가올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촉구했다.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국민에게 군부 지지를 하도록 은근한 협박을 한 것이라고 본다.

그는 3월 27일 행한 연설에서 미얀마의 발전에 있어서의 탓마도(Thatmadaw) 즉 군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연설에서 그는 군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방어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정치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쉐는 그의 이러한 발언을 곧 현실로 옮겨, 그와 약 20명의 장관들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4월 29일 선거위원회에 ‘연방의 연대·개발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라는 정당을 등록했다.

이 정당은 군부가 만든 기존의 대중조직인 ‘연방의 연대·개발 연합’(USDA: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Association)에서 발전된 것이다. USDA는 약 2,4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중 상당수는 강압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USDP가 친군부 후보

자들을 내세워 선거에 뛰어들면, 이미 국회의 25% 의석을 확보해 놓은 군부 정권의 국회 장악력이 더욱 제고될 것임에 틀림 없다.

1990년 선거 때 친군부 정권의 정당으로 나섰던 국민통일당(National Unity Party)도 이번에 등록을 했다. 정권에 연결되어 있는 정당은 모두 6개 정도이다. 그밖에 산(Shan)족의 정당 등 소수민족 정당들도 있다. 7월 초 현재 기존의 5개 정당 외에 총 38개의 새로운 정당이 이번 선거 참가를 위한 등록을 마쳤다.

### **참고문헌**

*ABC-CBN News*, 2010/3/8

*BBC News*, 2010/3/8; 2010/3/12; 2010/4/30; 2010/7/10

“Burmese general election, 2010,” *Wikipedia*, 2010/7/11

*CNN.com*, 2010/3/25; 2010/3/27

*UPI.com*, 2010/3/12

*The Wall Street Journal*, 2010/3/28